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79 검은색과 극가 그리고 자연

검은색의 이중적 의미



●한국



보수적인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검은색과 회색 그리고 하얀색을 선호했으며, 국산 자동차 색상도 갈수록 화려해졌다. 소비자들은 주로 고급 차에 검은색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코팅제 생산업체인 듀폰은 '2008 듀폰 글로벌 자동차 색상 인기도 리포트'를 발표했다. 나라별 좋아하는 자동차 색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검정(25%)이 2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검정은 매우 나쁜 의미의 색이며, 우선 가장 추운 겨울이나 북쪽 그리고 인생의 끝을 상징한다. 검정은 '근목자흑(近墨者黑, 먹이 가까이하면 검어진다)'이란 말이 있듯이 속세에 물든 타락한 색이다. 그러나 권력과 지배를 암시하는 동시에 우아함과 기품을 표현하고자 할 때 또는 숨겨진 강력한 힘을 나타내려 할 때 검은색을 사용하면 좋다.

2000년 지(誌)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조사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검은색이 5.5% 순으로 1988년 조사와 근사치에 가깝다.

한국 색채연구소 표준화팀(1998년)은 1997년 11월 수도권 5개 지역과 지방 8개 지역으로 나누고 1500여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제4차

대국민 색채 선호도를 조사했다. 이 설문조사는 재단법인 한국색채연구소가 시행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의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 플라스틱 색채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확대 시행됐다. 1차년도 사업의 결과물인 300색 중 대표되는 78색을 선정해 이를 시편으로 활용하고, 응답자가 시편 중에서 각 설문 항목별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색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한 달여 기간 실시된 설문조사는 6가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싫어하는 색으로는 빨강(9.8%), 노랑(7.8%), 갈색(5.8%), 검정(3.2%), 분홍(3.1%)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과거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고채도의 원색들이 혐오 색의 상위를 기록했고 중간색 종류의 안정된 색에 대한 거부 반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자동차, 아파트 외벽의 색, 주방용 가전제품의 항목별로 가장 좋아하는 색을 조사했다. 의류에서는 검정이 28%, 하양이 7%, 짙은 빨강과 빨강이 각각 4%와 3%씩 나타났다. 빨강의 선호가 눈에 띄게 늘어났지만, 검정과 하양의 선호 비율은 큰 차이 없이 같은 순위를 기록해 흑백에 대한 선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서는 검은색이 25%, 하얀

색이 22%, 빨간색이 7%, 다갈색이 3%로 나타나 의류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3차 조사와 비슷). 검은색과 하얀색의 비중이 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이채롭다.

주방용 가전제품에서는 하얀색(13%)과 검은색(7%), 검은색과 짙은 빨간색(와인색이 3%)을 제외하면 하양에 가까운 밝은 파란색, 밝은 분홍색들이 상위의 주류를 이루었다.

●색채와 음식

토마토는 '눈의 비타민'이라고 불리고, 비타민A가 함유돼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채소다. 익지 않은 토마토 3개를 따서 1개는 하얀 천, 또 1개는 빨간 천, 마지막 1개는 검정 천에 써서 햇빛이 드는 곳에 놓았다. 얼마 후 검정 천의 토마토는 녹색 그대로 시들어 있었다. 천의 색깔에 따라 익는 정도가 다른 것은 토마토가 필요로 하는 햇빛의 투과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12세기 영국과 유럽에서는 2가지 빵이 존재했는데, 검정 빵(호밀에 밀을 조금 섞어서 만든)은 농민들이 먹는 서민용으로 구분됐다. 14세기 후반에는 하얀 빵 조합과 검정 빵 조합이 결성됐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공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올해 첫 '황금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독감 대유행' 감염자 8년만 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1월27일은 설 연휴와 직전 주말 사이 끼여 있는 날로,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직장인들은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6일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등에 영향 미치는 것 분석한 바 있다"며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교통량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겨울 '불청객' 인플루엔자(독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감염자를 기록할 정도로 대유행 중이다. 특히 광주와 전남 감염자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과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2024년 52주차)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3주 전인 49주차(7.3명)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치다. 전문가들은 감염 예방 수칙으로 △외출 전·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꼽았다.



'눈발 날리는 참사현장' 호남 최대 40cm 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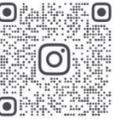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무죄 선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눈이 쌓이면서 전해 수거·사고 조사 작업이 잠시 멈췄다. 지난 7일 무안 공항 참사 현장 주변에는 전날부터 내린 눈이 쌓였다. 눈은 9일까지 최대 40cm7량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 사이 참사 현장 조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활주로 인근 등에서 수거된 유류품 및 차량 인계는 계속될 예정이다. 전날까지 1076개(일반 950개·전사기 126개)의 유류품을 수거했고, 소유자가 확인된 2647개를 유가족에게 돌려줬다. 희생자들의 차량도 옮겨달라는 유가족 신청 19건을 접수해 견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무기수 김신혜(47)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심 이후 열린 23년 만의 재심에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번 재심에서 김 씨의 살해 증거와 동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김 씨와 동생에 대한 친부의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גע 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이렇게 수십년이 걸릴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